**A picture containing 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창의적 표현을 통한 희망 찾기**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레바논에서 새로운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일을 돕고 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는 [나다 라파엘](https://arleb.org/profile/nada-raphael/)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베이루트 항구 지역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폭발 사고 - 역사상 가장 큰 비핵폭발 중 하나였던 사고 - 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대략 삼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라파엘 같은 예술가들도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

"베이루트는 나의 도시입니다"라고 레바논 출신의 사진 및 비디오 작가이며 언론인이 말했다. "이곳의 고통은 곧 저의 고통입니다. 저는 폭발 사고의 여파를 제 온몸의 뼈마디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기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어났던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현재, [나바드](https://nabad.art/)라 불리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다와 레바논 전역의 예술가들은 창의적인 표현을 통하여 희망을 찾는 활동으로 항구 폭발 사고의 기억을 보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치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되었다.

나바드는 [다랄칼리마 대학교의 예술 문화 학부](https://www.daralkalima.edu.ps/en)가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대응으로 만든 혁신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남 아시아와 북 아프리카의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들에 동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랄칼리마 대학교는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 및 문화유산의 교육을 목표로 삼고 2006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설립되었다.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예술가들은 사람들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적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랄칼리마 대학교는 전 세계에 걸쳐 갈등과 불의를 해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를 홍보하는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https://pma.pcusa.org/donate/make-a-gift/gift-info/PG999999/)에서 부분적인 지원을 받았다. 다랄칼리마의 총장, 닥터 미트리 라헵 목사는 "헌금 지원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지역 사람들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특별한 시기에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잊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한다.

이 헌금 은 독특하게 사용된다. 본 헌금의 절반은 지구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교회에 지급되며, 헌금의 25%는 지역사회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 지역 교회에서 보유하며, 25%는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공의회에 전달된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예술적 표현과 움직임은 종종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평화의 희망을 찾는다. 또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라고 나다는 말한다. "예술은 다른 나라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인류를 연결시켜 줍니다.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서로 배우도록 돕습니다. 예술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들을 용기를 내어 돌이켜 보도록 도와줍니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를 덜 혼자이고, 덜 고립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치유가 용이하도록 도우십시오.

***기도합시다:***

*창조적인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색을 입히시고 노래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당신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재능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평화를 그리게 하소서.* ***아멘****.*